# MVP 윤호영 “내 가족에게 영광 바친다”

동부 윤호영이 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2012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수상한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 예상 깨고 압도적 최다표 영예
### 오세근 신인상·강동희 감독상

“아빠 힘내세요. 지후(4)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지후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무뚝뚝한 윤호영(28·동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아빠를 보기 위해 농구장으로 이동하던 아들이 그새를 못 참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6일 원주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 6차전 때다. 윤호영은 관중석에서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 지후와 아내 이샛별 씨를 만났다. 이미 몸은 만신창이였지만 그는 “가족들 생각만 하면 힘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아들의 손가락에 우승 반지를 끼워주진 못했다. 7차전까지 가면 막내 딸 지효도 경기장에서 함께 응원하기로 했던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30일 상무 입대를 앞둔 윤호영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2012 프로농구 시상식. 윤호영은 사흘 전의 아쉬움을 날렸다. 기자단 유효투표수 80표 중 51표의 압도적 지지였다. MVP(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으로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의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윤호영은 “그때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또 가족 덕에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 같다”고 회상했다. 꽃다발을 손에 든 가장은 객석의 가족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항상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한편 ‘슈퍼루키’ 오세근(KGC)은 베스트5와 신인선수상을 거머쥐었다. 동부를 정규시즌 1위로 이끈 강동희 감독은 감독상으로 챔피언 결정전 패배의 아픔을 달랬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2011~2012 프로농구 시상식 수상자**

| | | |
|---|---|---|
| 최우수선수(MVP) | | 윤호영(동부) |
| 감독상 | | 강동희(동부) |
| 신인선수상 | | 오세근(KGC) |
| 베스트5 | 가 드 | 양동근(모비스)<br>김태술(KGC) |
| | 포워드 | 윤호영(동부)<br>김주성(동부) |
| | 센 터 | 오세근(KGC) |
| 최우수수비상 | | 김주성(동부) |
| 식스맨상 | | 이정현(KGC) |
| 특별상 | | 추승균(KCC) |
| 인기상 | | 김선형(SK) |
| 이성구 페어플레이상 | | 김선형(SK) |
| 심판상 | | 장준혁 황순팔 |

## MVP 신정자 “하은주가 받을 줄 알았는데…”

### 리바운드상 포함 5관왕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KDB생명 신정자(32)의 솔직한 수상 소감에 웃음이 터졌다. 신정자는 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72표 중 총 38표를 얻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베스트 5상과 리바운드상, 팀 공헌도상, 우수수비상을 포함해 5관왕. 특히 리바운드상은 5년 연속 수상이다. 신정자는 “내게 이런 날이 왔다는 게 감격스럽다. 신한은행이 우승하면서 MVP로 하은주 선수 얘기가 나와서 걱정했는데 결국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고 털어놔 박수를 받았다.

성적이 발군이었다. 정규리그 40경기 중 39경기에 출장해 평균 15.3득점(6위)-12.5리바운드(1위)-1.4블록슛(2위)-4.2어시스트(5위)로 전방위 활약을 펼쳤다. KDB생명의 2위를 이끈 주역. 신정자는 “이제 런던올림픽 최종예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신인상은 우리은행 이승아(20)에게 돌아갔다. 2010~2011시즌에 데뷔한 이승아는 지난해 후보에 올랐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시즌부터 신인상 범위가 2년차 선수까지로 확대되면서 행운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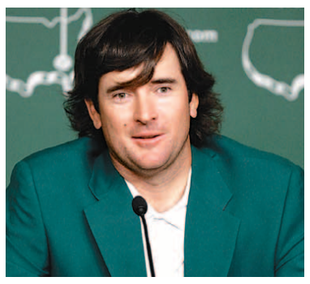
베스트5로는 신정자 외에 김지윤(신세계) 최윤아 김단비(이상 신한은행) 변연하(KB국민은행)가 선정됐고, 지도자상은 신한은행 임달식 감독, 프런트상은 국민은행 황성현 국장, 모범 선수상은 삼성생명 박태은이 각각 수상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KDB생명 신정자가 9일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 솔방울로 ‘골프 독학’ 왓슨, 오거스타 품다

###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장 끝 V
### 유명골퍼 서적 보며 스윙연습
### 골프장 공 줍던 무명 인간승리



버바 왓슨이 시상식이 끝난 뒤 우승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거스타(미 조지아 주) | AP연합뉴스

‘독학 골퍼’ 버바 왓슨(34·미국)이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마스터스(총상금 800만달러)로 장식했다.

왓슨은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 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76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루이 우스티젠(남아공)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파를 잡아 우승했다. 마스터스 역사상 18번째 연장 승부였고, 2003년 마이크 위어와 2004, 2006, 2010년 필 미켈슨(미국)에 이은 5번째 왼손잡이 골퍼의 우승이다.

연장 첫 홀을 파로 비겨 승부를 내지 못한 왓슨과 우스티젠은 10번 홀에서 두 번째 연장 승부를 이어갔다. 왓슨은 티샷이 숲 사이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묘기에 가까운 절묘한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뒤 파를 잡아 보기에 그친 우스티젠을 꺾었다.

2002년 데뷔한 왓슨은 PGA투어 통산 3승을 올렸지만 메이저 우승은 없었다. 2010년 PGA챔피언십 때 마르틴 카이머(독일)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게 메이저 최고 성적이었다.

필 미켈슨과 맷 쿠차(이상 미국),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페테르 한손(스웨덴)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마스터스에 첫 출전한 배상문(26·캘러웨이)은 이날 5타를 잃으면서 합계 4오버파 292타로 기대했던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공동 37위로 무난한 신고식을 치렀다. 황제의 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나란히 5오버파 293타를 쳐 공동 40위로 부진했다.

**●명인열전에서 우승한 ‘기인’**

왓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화끈한 장타다.

그의 올 시즌 평균 드라이브 샷 거리는 313.1야드다. 2위 제이미 러브마크(307.7야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장타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퍼트와 쇼트게임에서는 정교함이 떨어진다.

이유가 있다. 플로리다 출신의 왓슨은 타이거 우즈나 필 미켈슨, 로리 매킬로이처럼 골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그는 처음 골프를 배울 때부터 혼자 익히고 터득했다. 공 대신 솔방울을 치며 스윙 연습을 하기도 했고, 프로에 들어와서도 누구 하나 그를 일류 선수로 대접하지 않았다.

마땅한 스윙코치가 없어 잭 니클로스가 쓴 레슨서적을 보고 스윙을 익힌 최경주(42·SK텔레콤)나 고교 졸업 후 골프연습장에서 공 줍는 일을 하면서 골프를 배운 양용은(40·KB금융그룹)과 비슷하다.

독학으로 골프를 배운 탓에 스윙도 어설프다. 우즈나 매킬로이처럼 부드럽고 강력한 스윙이 아니라 왠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이 아마추어처럼 보인다. 퍼트와 쇼트게임 기술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눈물 뒤에 알려진 사연도 감동을 더했다. 어머니와 동료, 에이전트가 그린에 나와 그의 우승을 축하했지만 정작 아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개월 전 입양한 아들을 돌보느라 대회장에 오지 못했다. 그 어떤 우승자보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이유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시골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골프를 배운 버바 왓슨(오른쪽)이 제76회 마스터스에서 남아공의 루이 우스티젠을 연장 접전 끝에 꺾고 우승했다. 어머니가 감격해 울고 있는 왓슨을 다독이고 있다.
오거스타(미 조지아 주) | AP연합뉴스

**▮ 마스터스에서 나온 진기록들**

## 우스티젠 첫번째 2번홀 ‘더블이글’
## 4번째 출전한 선수끼리 연장승부

‘명인열전’ 마스터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골프를 배운 버바 왓슨이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감동은 두 배가 됐다. 감동과 함께 쏟아져 나온 기록들도 마스터스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76번째 대회에서 작성된 기록들을 살펴본다.

**●우스티젠 역대 4번째 더블이글**

2번홀(파5·575야드)에서 작성된 루이 우스티젠의 ‘더블이글’(알바트로스)는 76년 역사의 마스터스에서도 보기 드문 명장면이다. 우스티젠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그린재킷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작성한 더블이글은 마스터스 최종일 갤러리를 열광케 만든 베스트 샷이 됐다. 우스티젠은 홀까지 260야드를 남기고 4번 아이언으로 공을 쳤다. 공은 그린 앞쪽에 떨어진 뒤 약 25m를 굴러 그대로 홀 안으로 떨어졌다. 그의 생애 첫 번째 더블이글이었다. 2번홀 더블이글은 마스터스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이날의 더블이글은 마스터스 역대 4번째 기록 가운데 두 번째로 인상적인 더블이글로 선정됐다. 1위는 1935년 대회에서 진 사라젠의 더블이글이다. 사라젠은 당시 15번홀(파5)에서 235야드를 남기고 4번 우드로 세컨드 샷을 날렸다.

**●4번째 출전한 선수끼리 연장전**

왓슨과 우스티젠의 연장전은 마스터스 역대 18번째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마스터스에 4번째 출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연장 승부가 2홀을 넘지 않았다는 기록도 계속됐다. 첫 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두 번째 홀에서 왓슨이 파를 잡아 우스티젠을 꺾었다.

**●역대 5번째 왼손잡이 우승**

2002년까지 마스터스에서 ‘왼손잡이 골퍼는 우승하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이 기록은 2003년 마이크 위어(캐나다)에 의해 깨졌다. 이후 2004년과 2006년, 2010년 필 미켈슨이 3차례 우승하면서 통산 4회 기록됐다. 왓슨은 역대 5번째 왼손잡이 우승자가 됐다. 2003년 불문율이 깨진 이후 왼손잡이 골퍼들의 마스터스 우승은 50%에 이른다.

**●세계랭킹 17위 이내 선수의 우승**

최근 8년 간 마스터스 우승자는 모두 세계랭킹 17위 이내의 선수가 차지했다. 연장전에 오른 버바 왓슨과 루이 우스티젠은 각각 세계랭킹 16위와 27위. 왓슨의 우승으로 기록행진도 계속됐다. 주영로 기자